



선재가족봉사단 윤혜숙 단장(왼쪽 끝) 가족은 봉사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봉사는 이론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

선재가족봉사단 단장 윤혜숙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아이들과의 대화가 부족했어요. 집안 어른들과 남편, 아이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든 가족문제가 해결됐죠. 아이들에게는 인성을 가르치고, 어른들은 가족단위 공동관심사가 생겼어요.”

광주 덕림사 선재가족봉사단 윤혜숙 단장은 ‘봉사’는 가족을 돌보는 최고의 힘이라고 말한다. 결혼 전부터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윤혜숙 단장의 활동은 결혼 후 가족

들에게 전해졌다.

음향장비를 판매하는 남편 최영철 씨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악기와 노래방 기기를 후원했다. 딸 최은정 양과 아들 최준호 군은 자신의 공부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님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끼여이 소매를 건어부했다

특히 최준호 군은 무등정신 요양원을 비롯해 20여 곳에서 자원봉사를 펼쳐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따뜻한 봉사는 이론이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는 윤 단장은 요양

원에서 진행되는 음악치료를 소개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반신반의하던 어른들이 이제는 도리어 봉사자들을 손꼽아 기다려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지내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니, 인성교육이 되더라구요.”

음악치료는 어르신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연말에는 발표회를 갖는다. 특히 몸은 불편하지만 남편이 기증한 악기를 연주하며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에 윤 단장의 가족은 큰 힘을 얻는다.

선재가족봉사단은 가족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2009년 2월 정립해 전체인원 190명 중 25가족인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월 2회 정기봉사를 실시한다. 봉사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들이 각자 모은 돈으로 이뤄진다.

윤혜숙 단장은 “우리 아이들의 선행이 많은 이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전국의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에 우리 선재가족이 봉사단이 불교봉사단체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신년 사업계획 발표

승려 노후수행관 완공, 재정 투명에 중점

서해안시대 개막과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선운사가 수행과 포교, 복지와 문화의 공동체를 통해 호남 북서부지역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주지 범만)는 1월 22일 말사주지와 교구중회의원, 실국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중회를 개최하고 신묘년 중무행정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사, 수행 및 교육, 문화, 복지, 생태환경, 포교, 지역사회와 의연대 등 7개 분야의 세부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중무회의는 △포살 결계를 통한 수행중풍을 진작하고 수행환경의 보전 △불학승가대학을 통한 초기불전의 연구와 백과사상연구소를 통한 수행 및 연구풍토, 조사스님의 선양사업 계승 △선운사 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차 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보급 △템플스테이를 상시운영하며 해외포교전문화관을 건립하여 민족문화를 재의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노력 △불교수행문화를 통한 산사체험 계획 △고창경찰서 경승활동과 군 포교활동 강화와 교구신도회를 활성화 △고창읍내에 어린이집과 불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확보와 건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고창사회복지관을 통한 사회복지사회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과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사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완공과 함께 복지법인 설립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예불 40분 인상적”

부산 흥법사, 대만 불자학생 2011문화캠프 성료

대만의 청년 불자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8박9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는 1월 16-23일까지 ‘2011 대만 남화대·불광대 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대만의 남화대학교 재학생 15명, 불광대학교 재학생 4명 및 지도교수, 국내 중국어 관련 학 전공자 14명 등 총 33명의 양국 대학생불자가 참가했다.

행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해 보다 자연스럽게 우리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견학, 스키 강습, 통도사 순례, 홈스테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 채합군(24, Tsai, Hanchun, 남화대) 씨는 “대만 사찰의 예불은 2-3시간 이상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40분 내외로 짧은 것이 인상적”이라며 “참선을 통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총괄책임자 김민주(41, 법명 보운향) 씨는 “후후 미국, 캐나다, 호주 지역 대학생불자 문화캠프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인간 욕심에서 비롯된 구제역, 생명존중하자

선운사·송광사·무각사, 구제역 희생 축생영가 천도재 봉행

전북지역 사찰에서는 구제역과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천도제가 각각 봉행됐다.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지장재 일인 1월 21일 지장전에서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구제역과 AI 희생 축생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구제역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다.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도 23일 선운사 스님들과 고창공무원 불자회, 선운사 신도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와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월



광주 무각사와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1월 21일 무각사 대웅전에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동물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다.

21일 대웅전에서도 불교단체 및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된 동물들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전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정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승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종교 화합은 선진일류국가 되는 길

민주평통·세계불교법왕청

전국불교도대회 성료

최근 조계종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이하 민주평통)와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은 1월 24일 오후 2시 부산 KBS홀에서 ‘국가안보와 호국실

천을 위한 전국 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김병일 사무처장, 법왕청평화재단 이준영 이사장, 일화종 황정 종정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병일 사무처장은 “종교적 국민대통합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건의

하고 통일운동의 중심체라는 정체성을 갖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불교계에서 나라를 구했던 호국불교의 정신을 되살려,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부산시민연등축제 표어 공모

2011부산시민연등축제 봉행위 결성

2011년 부산시민연등축제 봉행위원회가 결성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1월 26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1 부산시민연등축제 결성대회’를 봉행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10일로, 4월 15일 오후 6시 부산역광장에서 ‘봉축점등식’ 등 본격적인 부산시민연등축제의 서막이 오를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지난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광복로 봉축 문화의 거리’는 4월 29-30일 남포동 (구)미화당백화점 앞 광복로 일대에서 연등잔영과 무차만발공양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봉축연합대법회’는 5월 1일 오후 4시부터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봉행되고, 축제의 백미인 ‘제등행진’과 ‘대화화합한마당’도 오후 10시까지 계속된다.

한편, 부산시불교연합회에서는 2011년 부산시민연등축제 표어를 2월 28일 오후 6시 접수한다.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광주 비전사, ‘자비의 발’ 300여 만원 쾌척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1월 21일 ‘자비의 발’ 300여 만원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를 통해 환우가족 3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발 기금은 어려운 환우 치료비에 지원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워터 마린, 군법당, 노인복지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장학사업, 소아암백혈병 환우지원, 노숙자지원센터 등에 지원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